

함께하면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성령강림후 열네번째 주일

오늘은 성령강림후 열세번째 주일입니다.

2. 후레즈노 교회 주중 사역안내

중보기도회: 화요일 오전 10시 교회 예배당

심방전토팀: 수요일 오전 10시 교회 예배당

토요새벽예배: 매주 토요일에 집중해주세요

3. 8월 연합속회

8월연합속회 잘다녀왔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엠마오 가는길 (KWE 31기 여자기수)

8월15일(월)-18일(목) 있습니다. 장소는 Redwood Glen, Lo a Mar

6. 8월-9월 행사안내

8월 29일: 살행위원회

9월1일: 코커스 실행위원회

9월17일: 몽교회 개척예배

9월24일: 북가주선교디너

7.

예배위원 안내 및 봉사자

	회중기도	성경봉독	점심봉사
08월21일	안미나 집사	안광빈 집사	김규현 김형기 최승희
08월28일	구자홍 집사	안미나 집사	윤문섭 홍운기 임동재
09월04일	구경숙 집사	구자홍 집사	김현덕 안광빈 구자홍
09월11일	김미하 집사	구경숙 집사	차석준 김형기 윤문섭
<b>8월안내</b>	김은정 구경숙	<b>8월초불점화</b>	최성보 최주리아



Fresno 후레즈노  
Korean 한인연합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1726 Pollasky Ave Clovis, CA 93612 (559)299-0240  
www.fkumc.net fkumc@fkumc.net

목회자 칼럼

생각중하기

관계의 중심은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는데에서 시작합니다. 조율, 좋은 소리가 나도록 악기를 만지듯, 관계도 좋은소리가 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 시작이고 그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특히, 이런 관계가 예민합니다. 조율에 실패하면 잡음이 나듯이 관계조율에 실패하면 당연히 잡음이 납니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불편함은 가끔 잡음이상을 내기도 합니다만, 아무쪼록 서로 혹은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하는 것이 조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양보하는 경우 혹은 상대방의 양보로 조율은 마무리됩니다.

성경에도 갈등과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서신의 대부분은 교회의 갈등, 문제해결을 위해 바울의 조율이 담겨있습니다. 숨겨져 있지만, 제자들 사이에 이런 조율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삶에는 이런 조율이 필요하고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이루어지고 필요한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힘이 있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모한 자신감도 자리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 사이에는 두려움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이외에 서로에 대한 원망이 조심스럽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죄책감과 책임감 그리고 비난을 받았을 것 같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변한 것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생각이 변한 것은 성령 체험으로 시작됩니다. 성령체험의 본질적 변화는 신앙공동체의 중심은,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생각을 좁혀나가고 서로가 동의하고 통일하는 방법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양보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운데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잘되는 조직, 잘되는 공동체는 목표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서로 노력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의 서로의 생각중하기는 우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과 두 번째, 뚜렷한 목표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맡기는 훈련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의지를 공동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을 맡기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결국 말에서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이끄시는대로 맡긴다는 신앙고백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시고, 그렇게 변화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들은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생각중하기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Fresno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후레즈노한인  
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의 제자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일오후 12시30분 예배인도: 김규현 목사

입례찬양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경배와찬양 Praise & Worship	찬양팀	
❖ 입례송 Anthem	다함께	30장 (통50장)

고백

❖ 신앙고백 Confession	다함께	사도신경
❖ 영광송 Gloria Patri	다같이	3장
기도 Prayer	안미나 집사	

말씀선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안광빈 집사	렘 1:4-10
설교 Sermon	김규현 목사	

소망의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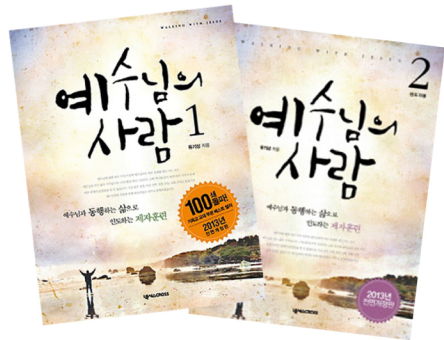
헌신과 나눔

봉헌송 Offering	다함께	391장(통446장)
❖ 찬양 Hymn	다함께	1장
교회소식 / Announcement	인도자	
❖ 축도 / Benediction	김규현 목사	
❖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중보기도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1. 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위해
2.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을 위하여
3.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 그리고 각 부서를 위해
4. 교회학교사역을 위해서
5. 질병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6. 2016년 기도제목을 위해 (개인별)
7. 김보흠집사와 변영근 성도를 위해
8. 이수경 집사 시아버지를 위해
9. 임동재 권사 백내장 재수술과 구경숙 집사 백내장 수술을 위해

❖ 함께 나눌 기도제목은 알려주시면 새벽예배와 중보기도회를 통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016년 성경공부  
예수님의 사람

지난주 헌금 통계

주일헌금	정윤희 박순옥 양정식 이명길 이명희 차석준 차경미 최승희 최미란 무명
감사헌금	구자홍 구경숙 김형태 김숙진 김혜진 윤문섭 임경희 장영심 홍윤기 김의숙
십일조	김규현 홍윤정 이수경 장영심 홍윤기 김의숙
기타	합계 \$1,935

예배안내

새벽기도회	화-토 새벽 6시	바울서신 강해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예수님의 사람
주일예배	낮: 12시30분 저녁: 7시	회의실 교회력설교 주일저녁 찬양예배
토요일아침성경공부	아침 7시	예수님의 사람

8월 교회행사

VBS 8/12-14,  
Circuit Retreat 8/14-16  
Korean Walk to Emmaus 8/15-18  
연합속회 8/20 : 아빌라비치

야외속회 / 8월20일

